

Ind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식품성분 평가 과학적 기준 적용 강화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식품성분 평가 기준 강화 발표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새로운 성분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는 새로운 식품성분 및 첨가제들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어 마련된 조치로 해석되며, 관계 당국은 향후 해당 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을 마련하는 등 규제적 틀을 강화하고 철저한 과학적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 및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새로운 식품성분 검사 시 엄격한 과학적 기준 적용

Pawan Kumar Agarwal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청장은 식품안전 평가에 대한 공개강의에서 새로운 식품성분 및 첨가제에 대한 평가 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Pawan Kumar Agarwal 청장은 또한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식품을 검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과학적 위험도 검사를 통해 모든 새로운 식품 성분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함

최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품안전표준법2006(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과 관련하여 제안된 수정안들을 검토하여 해당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함. 또한 관계 당국은 전매식품(proprietary food)과 새로운 식품에 대한 정의(Section 22(4), 식품안전표준법 2006)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Section 22(5)를 삽입하여 신규식품(Novel Food)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India Non Tariff Barriers Issue

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Shweta Khandelwal 인도공중보건재단(Public Health Foundation of India) 수석 연구원은 “식품안전을 확립하고 영양, 유해성 등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규식품 혹은 새로운 식품 성분에 대한 이름, 원산지, 제조방법, 사용 등의 정보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철저한 과학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과학기반의 식품성분 평가를 강조함

신규식품 정의 및 평가기준 예의주시하여 통관거부 대비해야...

이번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평가기준 강화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관련 규정 초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하지만 관계당국은 조만간 신규식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국내 혹은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과거 사용 이력, 용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로 라벨링 요건 역시 수정 및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인도로 식품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예의주시하여 통관이 거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 인도식품안전기준청 식품평가 기준 강화 관련 기사

<http://www.fnbnews.com/Policy-Regulations/fssai-to-examine-food-ingredients-using-scientific-measures-before-nod-43384>

출처

FSSAI to examine food ingredients using scientific measures before nod, FnBnews, 2018.06.27